

日本 飛鳥時代の服飾에 관한 연구
- 支配者層과 被支配者層의 服飾을 중심으로 -

이 자 연

신라대학교 패션디자인산업학전공 부교수

A Study on the Costume in Asuka Period of Japan
- Focusing on the Ruling Classes' and the Ruled Classes' Costumes -

Ja-Yeon Le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Industry, Silla University

(2002. 1. 18 접수; 2002. 5. 11 채택)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stume and features in Asuka perio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Asuka period is the time that the country leader positively imported the continental civilization, founded a new country organization in political society and accepted Buddhism and exerted his best passion for its thriving.

As the result of examining the costume and features of Asuka period when the requirement for accepting the foreign culture was met via the present costume regulation and relics material, it was found that the costume had a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of the ruling classes with government official and noble as the center and the common people. As for the costume of the ruling-classed official and noble, Korean and Chinese costume regulation was introduced, court dress, ceremonial dress, and uniform were dressed. The composition of costume with introduction of new clothes including Wio, Baedang, Seup, Pil, Kyongsang, for the ruling classes was diversified as well.

As the result of looking the clothes for the present ruling classes via the existing and the contemporary relics, it was found that the clothes consisted of Eui and Gon or Eui and Sang style in principle and Po with Banryung or Sooryung was worn over what. However, for the common people, mainly man wore Eui and Gon and woman Eui and Sang, which was the traditional costume style in the ancient tomb days.

Key words: Asuka period's culture(아즈카시대 문화), foreign culture(외래문화), ruling classes(지배자층), foreign factors(외래문화적인 요소).

I. 서 론

우리 나라와 中國, 日本, 이들 세 나라의 服飾은 정치적 혹은 문화적인 교류로 인하여 같은 양식을 띠고 있었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주변국의 服飾文化에 대한 研究는 우리 나라의 服飾을 研究함에 있어

이 연구는 2000년도 신라대학교 연구비로 이루어졌음.

看過할 수 없는 分野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韓國服飾研究의 空白時期인 伽倻와 百濟, 그리고 高麗史는 日本과의 관계에서 찾아내어 배워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고대 우리 나라와 교섭이 빈번하였던 일본의 飛鳥時代の 복식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飛鳥時代는 古墳時代に 이어 계속되는 시기로, 6세기말부터 8세기 전반까지의 시

대를 가리키며¹⁾, 본 연구에서는 飛鳥時代の 복식과 그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여 일본 복장사에 있어서 飛鳥時代 복식의 位相을 검토하여 봄으로써, 우리나라 복식의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나아가 일본의 복식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함에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우선 飛鳥時代の 복식문화를 형성시킨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고자 飛鳥時代の 사회와 문화 외교관계 등을 검토해 본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 이루어진 지배자와 피지배계층의 복식을 복제와 유물을 통하여 살펴본 후, 飛鳥時代 복식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지배계층의 복식특성에 대하여는 각종 문헌과 飛鳥時代の 복식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고 생각되는 당시의 服制인 冠位制, 唐制, 衣服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며, 또한 天壽國曼陀羅繡帳, 高松塚古墳壁畫, 聖德太子像 등의 유물에 나타난 복식을 참고하면서 분석하기로 한다. 피지배계층의 복식에 관하여는 하나와의 복식과 문헌에 나타난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II. 飛鳥時代の 時代的 背景

1. 推古朝廷과 飛鳥文化

飛鳥時代の 飛鳥란 明日香라고도 쓰며 地名을 지칭한 것으로 奈良 남부의 한 지방인 天香具川 이남의 飛鳥川 유역의 작은 분지를 말한다. 또한 飛鳥는 역사의 시대 구분에도 사용되어, 飛鳥時代라고 할 경우 明日香지역을 도읍으로 하여 역사가 전개되었던 推古天皇 전후의 시대를 가리킨다²⁾. 우선, 이 시대의 社會相을 살펴보면, 朝廷은 天皇家를 중심으로 한 畿內豪族들의 聯合政權으로 유력한 씨족이 형성한 氏族國家였기 때문에 天皇家를 포함한 氏族간의 갈등은 계속되었으며, 지방에 대한 지배력도 강력히 행사하지 못하였다. 6세기 후반이 되자 大臣인 蘇我稻目が 渡來人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朝廷의 재정기구를 정비함과 동시에 天皇家와 인척관계를 맺

고 大連의 物部氏를 압도하게 되었다. 6세기 말 蘇我稻目の 아들 馬子は 불교승배와 用明天皇을 둘러싼 대립관계에 있던 物部守屋를 무너뜨리고, 592년에는 崇峻天皇을 암살하고 정치의 주도권을 잡았다. 崇峻天皇 이후 蘇我氏와 관계가 깊은 推古天皇이 즉위를 하고, 다음해에는 천황의 조카인 聖德太子를 섭정으로 삼았다. 이후 聖德太子는 蘇我馬子와 함께 국내 정치의 개혁과 외교에 주력을 하였다³⁾.

推古天皇은 603년에 조선을 비롯한 대륙의 제도를 모방하여 冠位12階制를 제정하였는데, 이 제도는 세습적인 계급칭호와는 달리 개인의 재능과 공적에 대해 官位를 부여하는 것으로, 관리의 位階를 12段階로 정하여, 地位에 따라 冠과 服의 색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또, 604년에는 聖德太子에 의해 德法 17조가 제정되었으며, 天皇의 지위에 대한 유래와 天皇과 豪族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하기 위해 天鳥記 國記 등도 편찬되었다. 이러한 冠位12階의 制定과 17條 憲法の 發布 등은 官司制의 支配體制의 확립을 꾀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었으며, 飛鳥時代 후기에 들어와서야 律令의 法治體制로서 확립을 보게 되었다.

7세기초에는 당시 중국을 통일한 隋나라에 遣隋使를 파견하는 등 중국문화가 적극 도입되어 조선과 대륙문화의 영향으로 일본의 문물이 현저히 진보된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⁴⁾, 이때까지는 조선에 사절을 보내어 그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589년에 중국을 통일한 隋와 국교를 열기로 하였으며, 마침내 推古天皇 15년(607년)에는 제1회 遣隋使로 小野末子を 隋에 파견하였다. 이것이 遣隋使의 시초로, 3회까지 이르렀으며, 이들 遣隋使와 함께 留學生, 僧侶, 學文僧을 파견하여 중국의 제도와 종교, 학문을 배우게 하였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이 시대는 조선과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律令國家의 터전을 마련한 시기였고 불교문화의 토착화를 도모한 시기였다. 특히 이 시대의 문화를 당시의 수도의 이름을 따서 飛鳥文化라고 하였으며, 건축, 음악, 미술 등 다방면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보였던 시기였을 뿐 아니

1) 新村出編, 廣辭苑(東京: 岩波書店, 1998), p.45.

2) 上掲書, p.45.

3) 김문길, 일본 역사와 문화(서울: 형설출판사, 1998), p.45.

4) 相川佳子, 服裝史(東京: 相川書房, 1984) p.119.

라 정치기구에도 커다란 변혁을 가져다 준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律令國家의 形成과 白鳳文化

隋가 29년만에 멸망하고 618년에 唐이 중국을 통일하자, 630년에 遣唐使를 보내기 시작하여 894년 폐지될 때까지 15회에 걸쳐 파견하였다. 그 결과 그 때까지 주로 조선을 거쳐 전해지던 선진 대륙의 문화가 직접 일본에 전해지게 되어 여러 가지 변혁과 현저한 진보를 가져다 주었다. 특히 정치에 그 영향이 미치게 되어 마침내 大化改新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大化 3년(647년)과 동 5년(649년)에 있는 官位制의 개정 등은 官司制度를 정비하기 위한 大化改新의 구체적 표현이었다.

天武天皇은 八色姓을 제정하여 皇族을 중심으로 한 신분질서를 규정함으로써 天皇의 절대적 지위를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豪族을 정부의 관리로 조직하고 중앙행정기구와 官位制度 昇進制度도 정비하였다. 또한 동 11년(683)년에는 官位制를 폐지하였고, 동 13년(685년)의 새로운 포고의 제정, 大宝令에 의한 三衣服制度를 완성시켰다. 689년에는 飛鳥淨御原令이 시행되었고, 다음해에는 令의 규정에 따라 庚寅年籍이 만들어져 호적에 의한 반전수수제도가 확립되었다. 또 太政官을 중심으로 지배기구가 정비되었으며, 지방의 행정조직도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694년에는 中國 都城을 모방하여 飛鳥 복부에 마련한 계획적인 정치도시 藤原京로 천도함으로써 律令國家의 체제는 거의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조선을 비롯한 唐의 영향은 정치제제뿐만 아니라 문화면에도 파급되어 신 국가건설의 기운 속에서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한 白鳳文化가 번영하였다. 이 시대에는 불교에 의해 국가안녕을 도모하는 진호사상에서 불교보급에 진력했고 大官大寺, 藥師寺와 호족사원이 飛鳥를 중심으로 건립되었다. 회화에서는 인도와 대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法隆寺의 금당벽화가 있고, 高松塚 古墳壁畫에도 조선의 영향이 농후함을 알 수 있다.

Ⅲ. 飛鳥時代의 服飾

5) 이자연 역, 日本服飾史(서울: 耕春社, 1999), p.34.

1. 官吏 貴族의 服飾

1) 服制에 의한 服飾

(1) 冠位制에 의한 服飾

飛鳥時代 初期에는 왕권의 세습제를 강화하고 중앙집권국가를 형성하기 위하여 推古天皇 11년(603년)에 관리의 계급과 제복을 정한 冠位12階를 제정하였다. 이것은 飛鳥時代의 관리의 복식제도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조정에 있는 官吏의 位階를 12段階로 정하여 그 지위에 따라 冠과 服의 색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당시 조선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며 조선에서는 冠과 衣服의 색에 의한 位階의 구별과 冠에 금, 은의 장식과 새의 깃털 등도 붙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조선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제정하였다⁵⁾. 冠位制에 있어 冠과 服의 색은 중국의 陰陽五行說에 의한 木 火 土 金 水를 각각 배치하여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최고의 地位를 나타내는 官吏의 冠의 색은 紫이며, 그 이하 靑, 赤, 黃, 白, 黑으로 나누어 이 6가지 색의 濃淡에 따라 지위를 표시하였다. 服의 색도 冠과 같은 색으로 하였다. 관리는 두상에 상투를 틀었으며, 여기에 특별한 행사시에는 의례용으로 雉華라는 장식물을 꽂았다. 한편, 7세기까지 해오던 머리형태인 美豆髻는 관직이 없는 사람과 소년들 외에는 하지 않게 되었다. 大化 3년(647)에는 冠位の 수가 증가하여 冠의 색도 늘어나게 되는 등 服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7色13階의 服制가 정해졌으며, 大化 5년(649)에는 다시 冠位19階로 고쳐지고, 天智天皇3년(664)에는 26階로 바뀌어졌다. 이와 같이 계속되어 오던 位階制度는 天武天皇11년(683)의 服飾改革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 天武朝의 복식개혁은 다음의 持統朝에 까지 영향을 미쳐 持統 4년에는 服色, 服地 외에 帶, 袴 등까지 위계에 따라 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同 7년(693)에는 官人들 외에 一般庶民이나 奴隸階級에도 服制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편, 天武朝의 복식개혁으로 폐지된 의복으로서의 纏, 袴, 腰蓑과 수라상을 담당하는 특수한 직책들이 착용하였던 手纏과 肩衣가 있었는데, 이 기록으로 보

아 이러한 것들이 이미 착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纁은 褙 위에 두르는 앞치마와 같은 장식용이며, 脛裝은 脚帶라고도 하는데 바지 밑에 착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2) 唐制에 의한 복식

前述한 바와 같이 冠位制가 폐지된 이후에는 중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冠服制度가 정해졌다. 즉 冠은 검은 紗에 옷칠을 한 의식용의 漆紗冠과 악식 의장용의 圭冠이라고 하는 자루모양의 모자가 제정되어 쓰기 시작하였으며, 이 圭冠은 後代에 관리들이 쓰던 烏帽子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 이때부터 冠의 색으로 位階를 나타내던 것을 服色으로 표시하게 되었다.

의복은 공식용의 袍인 有襟과 평상용의 袍인 無襟의 두 종류로 되어 있으며 袴는 이전의 바지모양에서 변화된 切袴를 입었다. 따라서 官吏의 복장은 業務 時에는 漆紗冠과 有襟袍, 白色의 切袴를 입은 후 金具가 달린 검은 가죽 帶를 띠었으며, 평상시에는 圭冠에 無襟袍, 括緒의 袴를 입고 倭文布나 綺로 된 帶를 매었다. 袍는 有襟袍와 無襟袍 모두 整領으로 되어 있으며 갖의 여밈은 長紐와 結紐의 두 형식이 사용되었다.

의복의 재료로는 袍와 袴 모두 絁로 만들었으며 袍에는 位階에 맞는 색이 사용되었고 袴는 모두 백색으로 만들었다.

袍의 색을 보면, 皇族은 朱華, 諸臣은 上位에서부터 紫, 緋, 綠, 縹가 사용되었으며, 公事에 종사하는 서민의 경우에는 황색의 의복을 입고, 노비는 검은 색의 의복을 착용한다.

이렇듯, 飛鳥時代の 唐制에 의한 관리의 복식은 일본 고유의 복식이 아닌 외래의 영향으로 인한 복식일색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唐의 服飾制度和 唐의 制度를 먼저 받아들여 채용한 新羅의 服飾制度和 관련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衣服令에 의한 服飾

文武天皇 大寶 元年(701)에 大寶律令이 제정되어 服制는 다시 정비되었다. 大寶의 衣服令은 현재 그 원형이 잘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그 후에 제정된 養老律令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전해지므로, 養老律令을 참고로 하여 당시의 복식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당나라 식을 따랐으며, 복식 또한 당나라의 복식에 의한 것이다⁶⁾. 養老律令에 의하면 의복은 禮服과 朝服, 制服의 3종류가 있으며 각각 文官과 武官 女官 별로 나누어져 있다⁷⁾.

禮服은 天皇, 皇太子, 皇族 그리고 5位 以上の 남자가 即位式이나 大嘗式, 元日の 節會 등의 의식에 착용하는 것으로, 文官 禮服은 禮服冠과 衣, 白袴, 條帶, 紗襪, 錦襪, 烏皮烏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綬와 玉佩는 신분에 따라 그 종류를 달리하여 착용하였고 牙笏을 손에 들었다. 武官의 예복으로는 牟羅冠을 쓰고, 位襖를 입은 위에 摺袴를 착용하였으며, 白色의 袴를 입었다. 帶는 金銀의 장식인 刀를 찼다. 그리고 종아리에는 錦으로 만든 각반을 대었으며, 흰색의 履과 반장화형태의 烏皮靴을 신었다. 位襖는 位階에 따라 색을 달리하여 입은 表衣이며 無襟의 衣이다. 여자의 예복은 寶髻와 衣, 紵帶, 裙, 襪, 烏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寶髻는 頭頂에 머리를 틀어 올린 후 여기에 금이나 옥으로 장식을 한 것이다.

朝服은 일반 官吏가 朝廷에 출사할 때 입는 公服으로, 남자는 모두 頭巾을 쓰고, 文官은 衣, 白袴, 腰帶, 白襪, 烏皮履를 착용하였으며, 位階를 나타내는 주머니를 찼다. 頭巾은 唐代에 썼던 牟羅로 만든 주머니형태의 冠이다. 武官의 朝服은 位襖, 白袴를 착용하고 腰帶와 烏皮履를 신었다. 여자의 朝服은 禮服에서 寶髻와 裙을 제외한 것으로 垂頭에 筒袖의 衣를 입고 그 위에 紵帶를 매고 裙과 襪, 履를 착용한 것이다.

制服은 無位の 下級官吏라든가 一般民衆이 公事에 종사할 때 착용하는 것으로 朝服에 준 하는 의복이지만, 극히 간소한 것으로 黃袍에 烏油腰帶를 매고 白襪과 皮履로 구성되어 있으나 평상시의 履로는 草履가 사용되었다.

6) 上掲書, p.53.

7) 相川佳子, 前掲書, pp.122-123.



〈그림 1〉天壽國曼陀羅羅織帳.
(親選 日本史 圖表: 1990).

2) 遺物資料에 의한 服飾

飛鳥時代의 官人貴族의 복식양상을 표현한 유물로는 天壽國曼陀羅羅織帳, 高松塚古墳壁畫, 聖德太子像 등이 있다. 天壽國曼陀羅羅織帳(그림 1)에서의 인물상의 복장을 보면, 赤色上衣을 입고 있는 인물의 의복을 보면(상단 오른쪽 두 번째), 깃 들레와 수구, 단 부위에는 녹색의 다른 천이 덧대어져 있다. 깃은 盤領으로 되어 있으며, 허리에는 帶가 매어져 있고 매듭은 앞에서 묶도록 되어 있다. 下衣는 통바지를 입었으며 바지 단에도 상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천이 덧대어져 있다. 그리고 上衣과 下衣사이에는 주름이 있는 치마모양의 의복을 입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주름이 있는 옷은 7세기의 章懷太子墓의 韓人使臣圖와 高松塚壁畫의 女人圖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唐의 文官俑과 觀世音菩薩圖의 侍從 3인이 착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禮服一襲 중의 하나인 裳으로서 착용하였다고 하며, 이것을 袴이라고 하였다.

여성으로 보이는 인물(하단 왼쪽 첫 번째)은 綠色 盤領의 上衣에 깃 들레 소매부리 그리고 段에 赤色の 천이 덧대어져 있고 上衣의 길이는 엉덩이 부위까지 오는 길이며, 허리부위에는 帶가 앞에서 매어져 있다. 그리고 흰색의 치마는 주름이 잡혀져 있

으며, 치마의 길이는 신발이 보일 정도이거나 발등을 덮을 정도의 길이이고, 끝은 段 쪽으로 약간 퍼져 있는 상태이다. 또한 여자의 의복도 남자의 것에서와 같이 上衣과 下衣 사이에 모두 赤色の 袴를 착용하고 있다. 또 다른 여자의 인물상을 보면 의복의 구성은 전술의 것과 같으나 검은색의 上衣에 반령의 깃과 소매부리, 단 등에 적색의 袴이 둘러져 있으며, 袴의 색도 赤色一色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인물상의 대부분이 지금의 솔더백과 같은 형태의 주머니를 왼쪽 또는 오른쪽 어깨에서 걸쳐서 반대편의 겨드랑이 부위에 주머니가 오도록 매어져 있다.

高松塚壁畫의 남자인물상(그림 2)의 복장을 보면, 머리에 菱紋이 새겨진 복두와 무릎아래까지 오는 袍를 착용하고 있고, 袍는 東西壁 각각 黃色과 靑色, 綠色 그리고 黑色이며, 垂領의 깃에 托은 左襟으로 되어 있다. 여밈의 방법으로는 흉위부위는 結紐로 되어 있으며, 허리에는 長紐로 여밈처리가 되어 있다. 또한 袍의 하단에는 袴이 부착되어 있고, 소매는 통소매로 天壽國曼陀羅羅織帳의 소매보다는 그 폭이 넓은 편이며, 소매부리에는 다른 천이 덧대어져 있다. 下衣는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의 것만을 보면, 白色의 바지를 입고 있으며, 이것은 天壽國曼陀羅羅織帳의 바지모양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



〈그림 2〉高松塚 古墳壁畫.
(親選 日本史 圖表: 1990).



〈그림 3〉 高松塚 古墳壁畫.
(親選 日本史 圖表: 1990).



〈그림 4〉 聖德太子像.
(한국의 복식: 1993).

여자의 복장 (그림 3)은 길이가 무릎 위까지 올 정도의 긴 上衣에 치마를 착용하고 있으며, 上衣의 깃은 垂領에 左衽으로 되어 있다. 여밈은 가슴부위에 長紐와 結紐로 여미도록 되어 있다. 上衣의 段에는 바탕 천과 같은 색의 襷이 달려 있으며, 襷의 아랫단에 横처럼 보이는 세로줄 무늬가 있는데, 이것이 주름이라고 한다면 褶일 것으로 추정된다.

聖德太子像 (그림 4)은 奈良 前期에 그려진 것으로⁸⁾, 山背大兄王과 殖粟王이라 전하여지는 2인의 동자를 좌우에 배치한 像인데, 이것은 飛鳥時代の 天武, 持統朝의 官人의 복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資料의 하나이다. 이 畫像에서의 服飾을 살펴보면, 우선 가운데 서 있는 聖德太子像은 盤領의 길이가 긴 圓領을 입고 幘頭를 썼으며, 통이 좁은 바지를 착용하고 손에는 笏을 들고 있다. 圓領은 길이가 발등을 덮을 정도의 길이이며, 옆은 터져 있다. 소매등은 비교적 넓은 편이며 길이는 길다. 그림에서 곡선의 아름다운 드레이프가 드러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얇고 결이 고운 옷감 즉 견으로 만들어진 듯하며, 圓領의 안감은 무늬가 있는 천으로 되어 있다.

2. 庶民의 服飾

1) 인물 하나이에 표현된 복식

古墳時代 중엽인 5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하나와는 飛鳥時代に 해당하는 7세기에도 제작되었기 때문에, 飛鳥時代の 복식연구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자료라 생각한다. 우선 인물하나와상의 의복은 어느 계층의 의복이며, 서민층에서는 어떻게 착용되었는가의 논의를 해 보기로 한다. 小林行雄은 古墳時代の 유적에서 발견된 馬具는 고급품이 대부분이며, 實用品으로는 適合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日本에 있어서의 乘馬는 초기에는 儀仗用이었음을 시사한다⁹⁾고 指摘하였다. 그렇다면, 乘馬를 위한 2部式의 衣服도 導入初期에는 儀仗用의 衣服이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즉 2部式의 衣服은 처음에는 上層階級에만 着用하였던 것으로, 首長이나 首長の 權威를 象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그 주변의 사람들이 儀仗用으로서 着用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根據로서, 石母田正은 日本 古代社會에는 首長制라는 것이 있어 국제적인 交流는 首長制를 통하여서 하고, 首長이 國際的 交流의 기능을 擔當하게 됨에 따라, 國內의 階級分化라든지 지배형태, 國家構造에 각각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首長制는 最高의 수장인 천황을 중심으로 한 支配層이 中國 및 朝鮮의 선진 統治技術과 국가기구, 법전 등을 도입하여 실시함으

8) 關根眞隆, 奈良朝服飾の研究, 日本史學研究叢書(東京:吉川弘文館, 1974) p.58.

9) 小林行雄, “上代日本における乘馬の風習”, 史林, 34卷3號 參照.

로써, 國際的인 交流가 없고 공동체적 관계에 있던 공동체성원에 대해서는 계급적 우위감을 체계화시키는 수단이 되었다¹⁰⁾고 지적하였다. 즉, 首長이 共同體成員에 대하여 계급적 우위감을 가지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당시의 先進文化였던 2부식 의복을 채용하였던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衣服의 도입은 물론 職制기술과 봉제기술의 도입을 의미한다. 일본 고유의 衣服形態는 『魏志倭人伝』 등 古文獻의 記錄¹¹⁾에서와 같이 縫製를 하지 않은 의복이라는 점에 비하면, 2부식 의복은 縫製의 단계가 의복완성에 있어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當時 日本의 未洽한 技術로는 2部式 衣服의 製作은 不可能하였기 때문에, 『万葉集』¹²⁾이나 『雄略記』¹³⁾에 記述되어 있는 바와 같이 先進國에서 來朝한 縫工女나 衣縫女の 技術에 依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考古學的인 根據로도 鐵針이 首長層의 古墳에서만 出土되고 있다¹⁴⁾는 점에서도 首長層의 2部式 衣服의 着用과 縫製의 技術的인 면이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제작된 2部式 衣服은 초기에는 首長의 權威를 可視的으로 표현하기 위해 儀仗用으로 도입하였을 것이다. 한편, 首長層과 周邊사람들의 衣服製作을 위해 渡來한 歸化人들의 技術은 庶民層에게 傳受되어¹⁵⁾, 8세기까지는 직접 국가에 關與를 하는 官戶와 官奴까지 2部式的 衣服을 着用하기에 이르렀으나¹⁶⁾, 여전히 庶民層은 乘馬習俗의 未定着, 그리고 織物生産力의 不足 등으로 말미암아 貫頭衣 系統의 固有服飾을 着用하였을 것으로 思料된다. 人物 하나와 상에 표현된 衣服의 形態가 모두 2部式的 衣服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5세기 중엽무렵, 固有服飾과 2部式的 衣服이 共存하였으며, 固有服飾은 庶民層이 着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농부나 一般女子의 하나와 상은 모두 上半身만 표현된 半身像으로 製作이 된

것은 下半身의 衣服을 省略한 것이 아니라 上衣 즉, 貫頭衣系統의 衣服을 着用하고 있기 때문에 造形上 下半身의 製作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正倉院所藏의 褄袖는 위와 같은 狀況下에서 서민들이 貫頭衣系統의 衣服과 並行하여 着用함으로써, 2部式的 衣服效果를 내는데 사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時代的으로 후의 것이지만, 8세기의 농민이 스카트형에 속하는 衣服을 着用하였으며¹⁷⁾, 『今昔物語』에는 仁和寺에서 僧의 시중을 드는 下童이 調布로 만든 옷을 着用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는 「여름에는 소매도 없는 옷을 입고, 그 길이는 오금까지이며, 겨울에는 두 개를 입고, 여름에는 한 개를 입었다(夏ハ袖モ无キ衣ニシテ, 長ハ圍本ニシテ, 冬ハ二ツ許, 夏ハ一ツ着セテゾ)」¹⁸⁾라고 記述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圍」이란 『倭名類聚抄』에 「圍 大素經注云圍 曲脚中也」라고 되어 있어 脚의 중앙부, 무릎의 뒤의 들이간 부분을 가리킨다. 즉, 律令體制下의 농민이 着用하였던 것과 같은 形態의 衣服인, 소매가 없고 무릎까지 오는 衣服이 『今昔物語』가 만들어진 12세기 전후에도 사회의 最下層民의 衣服으로서 着用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3세기 중엽의 『古今著聞集』 20卷에는 「下ろうの着る手なしという布着物を着て」이라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手なし」 즉, 「소매가 없는」이라는 것도 『今昔物語』에서 가리키는 衣服形態와 같은 것이라 생각되며, 이것도 8세기의 농민들의 衣服이었던 것이 階層을 限定시켜 下ろう, 즉 下層民이 着用하는 衣服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본다면 日本 固有의 衣服인 貫頭衣와 橫幅衣는 日本의 高温多濕한 自然環境에 適合하고, 또 下層民의 勞動에도 適合한 型이라는 점으로 인하여¹⁹⁾, 下層民에게는 계속 着用되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10) 石母田正(1976), 『日本の古代國家』, 參照.

11) 『魏志倭人伝』 - 略無縫, 『山海經』, - 衣服無針功, 『常陸國風土記』, 久慈郡條 參照.

12) 『万葉集』 卷7의 1273, - 住吉のはづまの君が馬乘衣, きひすらふ 漢女をすへて 縫へる衣ぞ.

13) 『雄略記』 14年正月條, - 身狹村主吉等共 吳國使 將 吳所獻手末才伎, 漢織吳織及衣縫兒媛第媛等 泊 住吉津.

14) 『月の輪古墳』 月の輪古墳刊行會編.

15) 小林行雄, 前掲論文 參照.

16) 北村哲郎, 『日本服飾史』(東京:衣生活研究所, 1993) p.43.

17) 武田佐知子, “律令制下の農民の衣服について”, 『女子美術大學紀要』, 11号(1981) 參照.

18) 『今昔物語』 卷15의 54話.

19) 猪熊兼繁, 『古代の服飾』, (東京:至文堂, 1962), 參照.



〈그림 5〉 法隆寺 玉蟲廚子.
(新選 日本史 圖表: 1990).

2) 法隆寺 玉蟲廚子에 나타난 복식

이것은 원래 金銅透彫唐草飾 金具아래에 玉蟲의 날개가 깔려있어 玉蟲廚子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공예품으로, 黒漆板 위에 赤, 綠, 黃 등의 유화로 그려진 것이다(그림 5). 이 그림에는 양식화된 바위나 나무의 구도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으며, 捨身圖虎圖의 捨身하기 위하여 몸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옷을 나무에 거는 사람 등 당시의 복식을 알 수 있는 인물상이 묘사되어 있다.

인물상의 복식을 보면, 오른쪽 아래의 捨身하는 사람과 나무에 옷을 거는 사람은 上衣를 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형태를 알 수 없으나 下衣인 치마는 허리에 둘러져 있고 그 위에 띠가 매어져 있다. 그리고 왼쪽아래 바지를 입고 있는 인물의 옷차림을 보면 上衣는 左衽으로 되어 있고 길이는 엉덩이까지 오며 허리에 띠가 매어져 있는데 깃만 다른 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소매는 팔꿈치까지의 길이로 짧게 묘사되어 있다. 바지는 통이 좁은 편이며 길이도 발목이 보일 정도의 길이인데 이것은 원래 바지길이가 짧은 것인지 아니면 바지부리에서 풀라매어져 있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上衣와 下衣의 樣相으로 보아 당시의 冠服이라고는 볼 수 없고 平常服을 착용한 庶民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3) 衣服令과 文獻에 의한 服飾

飛鳥時代の 서민의 복장에 대한 기록으로, 持統天皇 7년(693)에 서민은 黃色衣, 奴婢는 검은색 衣를 착용하도록 하는 일반민에 대한 衣服令이 있었지만, 이 시대에는 지방의 하급관리조차도 구식의 의복을 착용하였던 실정이었기 때문에, 서민의 경우는 더욱 더 옛 풍습을 따랐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예로 깃을 여미는 방법으로 左衽은 古墳時代 이래의 관습이었으나, 右衽을 하는 唐의 풍습을 모방하여 養老3년(719)에는 右衽을 하도록 하는 衣服令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우임이 통례로 되기 시작하였으나 正倉院에 보관된 후대의 의복 중에는 左衽으로 된 것도 다소 있기 때문에 완전히 右衽으로 바뀌어진 것은 아닌 듯하다.

문헌상의 기록으로 飛鳥時代 서민의 복식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는 『隋書 倭國伝』의 복식에 관한 기록을 보면, “서민은 맨발에 금으로 장식을 하지 않고, 의는 황색으로 봉제되지 아니하였다. 머리에는 관을 쓰지 않았으며, 다만 머리를 양 귀 위에서 내려뜨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 귀 부위에 머리를 結束시킨 美豆良형을 하고, 의복은 橫幅衣의 단순한 차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萬葉集』의 의복에 관한 기록을 보면, 서민의 복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荒妙衣, 藤衣, 麻衣, 皮衣 그리고 布肩衣라고 하는 소매가 없는 衣服이라든가 襟이나 月草 등, 紫草로 염색을 한 摺衣도 언급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도 착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서민의 생활을 묘사한 『貧窮問答』에는 “사람들처럼 자기도 경작을 하고 있으나, 숨도 들어 있지 않은 麻布의 소매 없는 옷은 해송처럼 갈기갈기 찢겨, 누더기를 어깨에 걸치고 있는데 불과하다……”²¹⁾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서민의 생활은 매우 궁핍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들의 의복은 마포의 소매 없는 간단한 의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飛鳥時代 서민의 의복으로는 麻나 藤과 같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서 만든 관두의나 황색의, 또는 통수나 소매가 없는 衣를 착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20) 相川佳子, 前掲書, p.125.

21) 이자연 역, 前掲書, pp.53-54.

IV. 飛鳥時代 服飾의 特性

以上, 飛鳥時代의 복식의 특성에 대해 당시의 服制와 文獻, 現存하는 遺物을 통하여 檢討해 본 결과, 服飾은 官人貴族을 중심으로 한 支配者層의 복장과 서민의 복장과는 큰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관위제, 당제, 의복령에 통하여 飛鳥時代 官吏의 복장을 살펴보면, 官吏의 의복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중국의 복제가 도입되어 朝服, 禮服, 制服이 착용되었다. 머리에는 冠을 쓰고, 上衣인 袍와 袴를 입었다. 그리고 허리에 帶를 매고 襪과 履를 신었으며, 太刀와 笏을 손에 들었다. 冠은 上衣의 색과 같으며 絛로 만들었고, 冠의 가장자리에는 玃단이 대어져 있다. 또한, 上衣은 冠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盤領에 소매는 통수로 되었고 앞에서 끈으로 묶도록 되어 있다. 下衣인 袴는 上衣와 같은 재료로 흰색이며, 형태는 前時代와 같은 형이다. 帶는 倭文布라든가 綺 등이 사용되었고 앞에서 묶어서 아래로 드리우게 하였다. 그리고 位襖, 袴, 襪, 纏, 腰裳 등의 새로운 의복이 채용되는 등 복식의 구성도 다양화되었다. 또한, 支配者層의 의복은 유물자료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衣, 袴 또는 衣, 裳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였고, 여기에 盤領의 袍나 垂領의 袍를 착용한 모습이었으며, 袍에는 有襪袍와 無襪袍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복의 형태는 上衣은 전체적으로 풍성하고, 袴는 통이 좁아졌으며, 머리에는 冠을 쓰고 있다. 그리고 高松塚 古墳에서와 같이 여자의 裳은 주름이 잡혀 있으며 장식이 더해지는 등 변화가 보였으며, 古墳時代의 하니와像에 나타난 服飾과는 많은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支配者層의 복장에는 外來文化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반면에, 서민의 경우에는 古墳時代의 전통적인 복장이 그대로 착용되었다. 古墳時代의 서민의 복장에 대하여는 인물 하니와像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貫頭衣나 橫幅衣를 중심으로 한 의복이었다. 한편 古墳時代의 支配者層의 복장이었던 衣와 袴, 衣와 裳의 양식이, 飛鳥時代에 와서는 대륙과의 통교로 인해 새로운 의복양식이 도입됨에 따라 서민층에게 보편화되었을 것이며, 생활에 여유가 없는 서민층에게는 貫頭衣나 橫幅衣도 여전히 착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古墳時代 이후의 飛鳥時代에

들어서도 法隆寺 玉蟲廚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着衣도 前時代와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服飾樣相은 飛鳥時代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의복이었으므로 支配者層과 서민층과의 복식에 있어 격차는 前時代보다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飛鳥時代의 支配者層과 庶民層과의 복식에 있어 차가 일어나게 된 이유로서는, 우선 이 시대에는 불교가 국가적 규모로 도입되었고 대륙과의 통교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대륙의 문화를 흡수하려고 하는 의식이 지배자들간에 공감을 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조정을 중심으로 한 관리들은 중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잦고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양식도 자연적으로 중국풍으로 하게 됨에 따라 복장에 있어서도 中國風을 따르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지적할 수가 있다. 그러나 大陸의 先進文化를 접할 기회가 없는 일반 서민계급은 여전히 前時代의 모습 그대로를 따랐으며, 그들의 복장도 종래의 것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서 만든 것을 착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V. 結 言

본 연구는 飛鳥時代의 服飾의 特性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飛鳥時代는 大和의 飛鳥, 河内の 飛鳥 등 한정된 지역에서만 성립된 특수한 문화를 지닌 시기로, 朝鮮을 비롯한 당나라와의 활발한 외교에 의해 불교, 건축, 조각, 회화, 음악 등多方面에 걸친 文化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즉, 飛鳥時代에는 국가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대륙 문물을 수입하여 정치 사회면에서 새로운 國家體制를 장려하였고, 정신 生活面에서는 불교의 수용과 그 융성에 열의를 쏟았던 시기였다.

飛鳥時代의 복식의 특성에 관하여 검토해 본 결과, 복식은 官人貴族을 중심으로 한 支配者層의 복식과 서민의 복식과는 큰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支配者層의 복식에는 조선을 비롯한 중국의 外來文化的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 位襖, 袴, 襪, 纏, 腰裳 등의 새로운 의복이 채용되는 등 복식의 구성도 多樣化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서민의 경우에는 貫頭衣나 橫幅衣 등, 古

墳時代の 傳統인 복장이 그대로 착용되었다. 이러한 服飾樣相은 飛鳥時代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양상이었으므로 支配者層과 庶民層과의 복식에 있어 격차는 고분시대 보다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飛鳥時代の 支配者層과 庶民層과의 복식에 있어 차가 일어나게 된 이유로서는, 우선 이 시대에는 불교의 도입과 대륙과의 통교로 인하여 大陸의 文化를 흡수하려고 하는 의식이 지배자들간에 공감을 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대륙의 文化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지배자들의 생활양식의 변화로, 복장에 있어서도 中國風을 따르게 되었다는 점등을 지적하였다.

이렇듯 飛鳥時代の 文化는 외래의 先進文化를 받아들여 발전시킨 外來文化이자, 당시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한 文化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시대의 지배자의 복식에는 外來文化의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飛鳥時代の 服飾을 논함에 있어 衣服附屬品을 비롯한 裝身具에 관한 것은 紙面關係上 本研究에서는 논급하지 못하였으며, 今後 論議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 고부자 (1994). 의생활의 연구. 최인화 최래옥 임재해편. *韓國民俗研究史 民俗學叢書* 5. 지식산업사.
- 김문자 (1979). 한일 고대 복식 관계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 김동욱 (1975). 일본 기마민족 정복설과 복식의 상관성. *문화인류학* 7.
- 김동욱 (1982). 한국복식과 일본 정창원 기악복식, *예술 논문집* 21.
- 김혜전 (1978). 고구려 벽화복식과 고송총 벽화복식의 비교연구. *승전대 논문집* 8-1.
- 김문길 (1998). *일본 역사와 문화*. 형설출판사.
- 량연국 (1990). *조선문화가 초기 일본문화발전애 미친 영향*. 사회과학출판사.
- 민두기 (1980). *일본의 역사*. 지식산업사.
- 신양식 (1990). *고대 한일문화교류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주성희 (1983). 일본 정창원 오녀배자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 진홍섭 역 (1996). *일본미술사*. 열화당.
- 유희경 (1983).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자연 역 (1999). *日本服飾史*. 耕春社.
- 이향미 (1984). 삼국시대와 고대 일본 복식 비교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 이은주 (1985). 일본 고대복식에 관한 연구; 한반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대한국정학회지* 23권 2호.
- 한상구 역 (1991). *天武天皇의 秘密*. 고려원.
- 宮田 久美子 (1980). *左衽について. 常盤學園短大研究紀要* 8.
- 關根眞隆 (1974). *奈良朝服飾の研究. 日本史學研究叢書*. 東京:吉川弘文館.
- 北村哲郎 (1980). *日本服飾史*. 東京:衣生活研究所.
- 相川佳了子 (1984). *服裝史*. 東京:相川書房.
- 新村出編 (1998). *廣辭苑*. 東京:岩波書店.
- 新選日本史圖表 (1990), 東京:第一學習社
- 日本書紀 下卷, 岩波文庫.
- 田辺昭三 (1976). *古墳時代の服裝と裝身具. 服裝文化* No.152, 東京:文化出版局.
- 田辺昭三 (1977). *飛鳥, 白鳳期の服裝と裝身具. 服裝文化* No.153, 東京:文化出版局.
- 有坂降道 (1974). *高松塚の壁畫とその年代. 高松塚論批*. 東京:創元社.
- 駿熙麟 (1986). *來人の遺跡を歩く*. 東京:六興出版.
- 太田臨一郎 (1989). *日本服制史 上*. 東京:文化出版局.